

그리스 난민사역 (Moria Refugee Exodus)

이축복



난민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매년 그리스 난민을 섬기면서 느끼는 것은 사역에 변화가 많고 항상 새롭다는 것이다. 2020 년 모리아 캠프에 불이 나면서 2 만 5 천명이 넘는 난민들이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했다. 먹을 음식, 물, 화장실 등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없이 생활하는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도 접근을 막는 경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모리아 난민캠프에서는 무슬림들의 영향력이 강했다. 캠프 안에서도 하루 3 번 기도하는 아잔 소리가 항상 울려 퍼졌고, 개종한 형제 자매들은 개종한 사실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랐다. 그러나 모리아 캠프에 불이 나고 엄청난 고난을 겪은 난민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 새 캠프로 이사를 하면서 개종한 사람들이 스스로 캠프 안에서 기도모임을 시작하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오가는 공공장소에서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Moria Refugee Exodus 라고 부른다.

2021 년은 나도 캠프 안에서 봉사자로 일을 시작했다. 규정상 캠프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형제들이 먼저 내게 찾아와서 복음에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캠프 밖에 방을 얻어 성경공부 모임을 시작했다. 찾아오는 형제 자매들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먹이고 입혔다. 저들의 필요를 돌보며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형제 자매들은 가족과 이웃들을 계속 데리고 왔다. 성장하는 형제들을 아프간 성경대학에 보내기 시작했고 Zoom 으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었다.



세상은 코로나로 날마다 두려운 뉴스들을 쏟아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무슬림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 2022 년 1 월 1 일 다시 그리스 레스보스에 들어왔다. 이곳에 오기전에 염려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며 들어왔다. 작년에 난민들의 숫자가 6 천명이었는데 올해는 1600 명으로 줄었다.

그래서 나는 이번이 마지막 사역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지금 새롭게 만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작년과는 또 차원이 다르다. 그들은 마치 스폰지처럼 말씀을 받아들이고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A 형제가 처음 복음을 듣고서 하는 말이 한번 믿으면 계속 믿어야 하는 데 그래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환경을 코너로 몰아가셨다. 자존심을 내세울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셨고 결국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성경 말씀을 랩으로 작사해서 부르고 있다.

R 형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면 세례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날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고 얼마나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L 자매는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확신이 없는 생활을 했다. 그런데 성경공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슬람은 사탄의 종교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한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님께서서는 저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또 무슬림들을 위해 구원의 깃발을 확실하게 흔들고 계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몸으로 뛰는 것이라 내 한 몸 피곤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제 기도의 맛을 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자 교회 모임을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자고 먼저 기도제목을 내놓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난민 캠프 안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형제 자매들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우리의 모임은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Jesus Hope Church)로 발전하게 되었다. 성경공부로 매일 모이고 밥도 함께 먹고 가족이 되어간다. 캠프에 살면서 각자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말 안 해도 교회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져와서 서로 나눈다. 그동안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우고 지금은 로마서 8 장을 외우고 있다.

개중에는 여전히 어려운 형제들이 있다. R 형제는 난민 ID 가 4 번이나 reject 되었다. 그 스트레스로 전에는 자살시도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고민할 시간에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 요 근래 많은 형제 자매들의 난민 ID 가 나왔고 일부는 Passport 까지 신청하게 되어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그러나 아직 받지 못한 형제들이 많아 그들의 텐트를 방문하며 서로 위로 하고 있는 중이다.

변화무쌍한 요즘 시대에 내일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마 24: 13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야 한다. 그리고 14 절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까지 선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기도한다.

2014 년부터 2016 년 4 년 동안 살면서 사실 한영혼을 구원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이슬람의 진을 흔들어 난민으로 보내고 계시다. 난민이 되어 어려운 상황을 겪으며 가난해진 마음의 문이 복음에 활짝 열려 있다. 지금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지금이 바로 주님과 함께



추수에 참여해야 할 시간이다. 오늘은 특별히 Salet 을 위한 세례식이 있는 날이기도 하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전 2: 46-47)